

20일 Market Index			
↓ 코스피	5552.74	↓ 코스닥	781.97
	(-215.27)		(-26.92)
↓ 금리	3.840	↓ 환율	1326.80
	(-0.037)		(-3.50)

AI거품 공포, 실적잔치에 찬물... 반도체주 추락

삼성전식 3분기 역대급 실적 적고도
주가 연일 하락, 고점대비 절반 '뚝'
AI 투자 대비 수익성에 의구심
中 기술 추격, 美 CPI 상승 등 영향

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끝모를 내
리막길을 걷고 있다. 코스피는 5550선까
지 밀려났다. 인공지능(AI) 투자 버블(거
품)에 대한 경보음이 커진 영향이다. "하
이퍼스케일러(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
사)들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인공지능
(AI) 관련 부채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
다"는 경고(S&P)와 "AI 거품 붕괴의 예
행연습(dressrehearsal)"이란 진단(파이
낸셜타임스·FT)까지 나왔다.

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
전날보다 2.98% 내린 21만1500원에 거래
를 마쳤다. 52주 최고가인 38만원보다는
44.34% 낮았다. SK하이닉스는 4.23% 내
린 122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. 최고
가 300만2000원 대비 59.43% 하락했다.

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
조4000억원이라는 전례 없는 호실적을
발표하며 매수세가 몰렸지만, 최근 주가
는 반등보다 하락에 무게가 쏠리며 외국
인 차익실현 매물이 분위기를 압도하고
있다.

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기대도 크
다. 증권사 전망치 평균은 3분기 매출 98
조5258억원, 영업이익 77조1682억원이



이재명 대통령, 3기 신도시 현장 시찰

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.
/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

다. 전망대로라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
경신하게 된다.

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끌어
내린 것은 AI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의구
심이다. AI가 미래 산업 지형을 흔들 '게
임 체인저'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다.
AI 산업이 현재 투자 규모와 차입 부채를
정당화할 만큼 빠르게, 큰 수익으로 이어
질 수 있느냐. 특히 기름을 부은 곳은
미국 인공지능(AI) 클라우드 기업 코어

위브다. 이 회사의 회사채 가격이 급락하
면서 빚에 기댄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
터져 나왔다. 영국 파이낸셜타임스(FT)
는 지난 19일(현지시간) '미국의 10조 달
러 규모 AI 인프라 붐에 균열이 생기기
시작했다'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곳
곳에서 짓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
획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
보도했다. 데이터센터는 AI 산업을 지탱
하는 주요 인프라다.

신용리스크도 불거졌다. 마크 하비브
S&P 글로벌의 디지털 인프라 글로벌 총
괄은 이날 런던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
에서 하이퍼스케일러의 이른바 '상호 연
결된 금융 구조'도 지적하며 "우리가 알지
못하는 더 많은 부채가 존재할 가능성이
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"고 말했다.
(2면에 계속)

/허정윤 기자

zelkova@metroseoul.co.kr



metro

체중 줄이고, 만성 대사질환·성인병 뿌리 뽑는다

블로장생의 꿈

〈下〉비만치료제의 진화

일라이릴리, 비만약에 건섵약 병용
피부증상 개선, 면역·대사 개선 효과
한미약품, 체중감량·관리 전주기 치료
비만신약 '에페글레나타이드' 개발

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글루카곤 유사
펩타이드-1(GLP-1) 계열 비만 치료제는
다이어트 약에서 만성 대사질환과 성인병
을 뿌리 뽑는 '통합 대사 치료제'로 빠르게
진화하고 있다. 글로벌 주요 제약사와 국내
바이오 기업들은 비만과 당뇨, 심혈관 질
환, 자가면역질환 등 서로 연결된 생물학
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며 적응증 추가에
총력을 기울인다. 〈관련기사 L8면〉

20일 국내 제약·바이오 업계에 따르
면,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최근 비
만치료제 '젠티아드(성분명: 티르제페타
이드)'를 자사의 건섵 치료제 '탈츠(성분



과체중, 건섵 등 대사 및 면역 질환에서도 비
만치료제 계열 약물들이 주목받고 있다.
/제미니이 생생 이미지

명: 의세키주립)'와 병용 투여하는 임상
3b상(TOGETHER-PsO) 데이터를 공
개해 비만과 면역 및 대사 질환 모두에서
약물 경쟁력을 높였다.

해당 임상에서 중증 건섵과 비만을 함께
앓는 성인 환자에게 두 약물을 함께 투여한
결과, 탈츠 단독 투여군 대비 피부 증상 개
선은 물론 면역 및 대사 관련 바이오마커에
서 한층 광범위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.

일라이릴리의 마크 제노베스 면역학
개발 부사장은 "건섵과 비만을 동시에 겪

는 환자들은 이중 부담을 안고 있지만 그
동안 별개의 질환으로 치료받아 왔다"며
"이번 연구는 면역과 대사 생물학 간의 의
미 있는 연관성을 보여주며 비만 관리까
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건섵 치료 접근법
을 뒷받침한다"고 강조했다.

국내 제약·바이오 기업들 역시 체중 감
량을 넘어 대사질환 전반으로 약물 활용
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.

한미약품은 체중 감량부터 관리·예방
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치료 포트폴리
오를 구축한다. 우선 국내 첫 토종 GLP-
1 비만 신약으로 '에페글레나타이드'를
자체 개발했다.

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국인 대상 임상
3상에서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와 뛰어난
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다. 또 심혈관
및 신장 보호 효과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
받는다. 약 4000여 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
행한 대규모 글로벌 심혈관계 안정성 연
구(CVOT)에서 주요 심혈관계 및 신장
질환 사건 발생 위험도를 획기적으로 낮

춰 혁신 가능성을 제시했다.

실제로 올해 국내에서 에페글레나타이
드의 당뇨 임상 3상을 본격화했다. 기존
당뇨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및 SGLT-2
저해제 요법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
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서 에페글레나타이
드의 혈당 조절 능력을 평가한다.

아울러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에페글루
루카곤의 병용요법 등을 전임상 단계에
서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확보하고 있다.
에페글루루카곤은 선천성 고인슐린혈증
을 치료하는 신약 후보물질이다. 주 1회
투여하는 자가 주사 가능한 글루카곤 유
도체로 개발되고 있다.

동아쏘시오그룹의 동아에스티는 다중
작용 기전을 무기로 대사질환 연구개발에
속도를 내고 있다. 특히 고용량 임상, 병
용요법 연구 등에서 성과를 내며 비만·
대사질환 치료 패러다임 확
장에 힘을 보탠다.

〈3면에 계속〉

/이청하 기자 mlee236@



metro

“주택공급 속도 높여야 실제 착공·입주 중요”

李 대통령, 인천 계양지구 점검

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
한 곳인 인천 계양지구(계양신도시)를 찾
아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도시·
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
를 진행했다.

이 대통령은 “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
다”고 강조하며 공공택지 개발 사업 추진
속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. 국민이 체
감하는 주택 공급의 기준은 '입주'인만큼
입주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
것이다. 계양신도시에는 오는 12월부터 3기
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다.

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
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현장
일정 사실을 전했다.

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
사가 진행 중인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
살펴보고,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계양부
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'인천계양 부천
대장 신도시 입지요건'에 대해 보고 받았
다. 이 대통령은 연말 입주예정 세대 규모
를 확인한 후 “원형지 분양이 공급기간을
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
검토해달라”고 지시했다.

계양신도시 12월부터 입주 시작
“주택공급 목표 차질없이 달성을”

또 “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
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했
다”면서 “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
등 지금이 비상시기만큼 공급기간을
당겨야한다”고 강조했다. 이어 국토교통
부와 LH에 “공공택지 개발의 전 과정에
서 사업 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주택
공급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
역량을 집중해달라”고 주문했다.

이러진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
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'입
주'라면서 “이미 발표된 공급대책들이 계
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라는 가시적
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이어 3기 신도시가 예측가능한 공급으로
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
안정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
한다고도 밝혔다.

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부장관으로부
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'을 보고 받고
LH인력 충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
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
했다. 이어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
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
볼 것을 지시했다. /서예진 기자 syj@

메트로 한줄뉴스

- ▲이재명 대통령 “중수청,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
고 수사”
- ▲이 대통령 “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달라...택지
조성·인허가·착공기간 최대한 단축”

- ▲정부, '국가정상화' 2차 과제 추진...지방의원
외유성 출장 등 비리 척결
- ▲김정은 사망설 확산에...북한매체, 건재 과시 사
진 공개



- ▲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...국무회의서
시행령 개정안 의결
- ▲서울 역삼동 빌딩 두 곳 연속 화재...심정지 1명
호흡 회복

/사진 뉴스